

한국문화교류 소식

12호 2014년 6월 15일 발행 • 발행인 박갑수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121-81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칼럼

문화운동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박원출

본회 감사, 전 조폐공사 사장

오늘날을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하여는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문화라는 말의 의미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쓰이는 영역이나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브레타니커에서는 문화를 넓은 의미로는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 낸 물질적·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해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정치문화, 사회문화, 안전문화 등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의미일 것이다. 결국 문화는 우리 삶의 모습이며 그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크고 작은 일들은 이러한 문화의 소산이고 반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구성원들의 불편이나 불만,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도 모든 면에서 이전과 비교할 때 상당히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정치문화도 2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민주주의의 실천 등의 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질서의식이나 부패 문제도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예술문화, 그중 특히 대중문화는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는가?

그러나 이러한 문화가 발전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퇴영적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황금만능주의, 조급증과 적당주의, 부정직, 편가르기 등의 의식과 행태 및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의 부조리는 이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발전과 퇴영이 함께 하는 사회 전반의 문화가 발현된 모습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도 이러한 우리의 문화가 빚어낸 어이없는 일이다. 이제 국가개조론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조직이나 사람의 개편, 특정한 제도개선 등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양식의 혁신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사회전반의 문화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문화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문화운동이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화의

개념을 좁게는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또는 세련된 아름다움이나 우아함, 예술 등의 요소 따위와 관계되는 일체의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글, 태권도 같은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를 복돋우고 발전시키며, 사회구성원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이 문화운동이다. 이러한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긍지와 자존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발전과 화합의 원동력이 되며, 부정적이고 퇴영적인 의식과 행태를 억제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분야에서 현상적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화운동을 통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과 사회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넓혀감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이런 문화를 세계가 함께 하도록 한다면 그 과정에서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우리와 후손들이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문화운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길 기대한다. 

50만 명의 운명을 바꾼 책! 방송대학 교재가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졸업생 50만 명, 재학생 18만 명.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방송대 학생들은
방송대 교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내용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40년간 사랑받은
방송대 교재가 이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국어의 국제화를 응원하는 방송대출판문화원 추천도서-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Readings in Korean Culture for Foreigners (국영문 합본)
김해옥 지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역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역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지식의나침반  에프[스]테[이]대 press.knou.ac.kr

초·중학교에서 왕따가 사라진 것은 태권도 덕분이다



이 병 화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경제학, 농경영학 박사

태권도는 한류문화의 원조다.

필자는 어릴 때 당수도를 배웠다. 유형(품새)은 몸집이 가벼운 소령류 보다는 약간 동작이 느린 소림류 쪽을 선택하였고, 1964년 군입대 후에 불무리부대(26사단)에서 한국군 처음으로 태권도를 보급하는 것을 보았다. 품새는 6군단장을 지낸 최홍희 장군이 고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 천지, 단군, 백두, 금강 등의 이름으로 1966년 11월 1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시범경기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군 제대 후 1967~71년 중반까지 고향 김해에서 대한당수도 무덕관(회장 황기선생) 소속, 태권도 오도관(최홍희) 소속으로 두 곳의 도장을 운영하였다. 당시는 태권도라는 용어보다는 당수도가 더 익숙할 때였고 예의범절이 철저한 무도인 양성이 골자였기에 17세 이상의 연령으로 국한했으나 도장 인근에 한일합섬 공장이 건설되어 당시 공화당 소속 김택수 의원의 부탁에 국내 처음으로 여공들에게 호신술 차원에서 태권도를 가르쳤다. 1972년 초,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게 된 배경은 원예기술자이기도 하지만 그때 이미

태권도 5단과 합기도 3단, 유도 2단 등 합계 10단 정도의 무술이 상당한 이유가 되었다고 훗날 고향선배인 하병호 경호과장으로부터 들었다.

태권도 사범들은 월남참전과 때를 같이 하여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였고 투철한 정신무장에 삼강오륜이 바탕이 된 도덕심으로 무예를 지도한 결과, 중국과 일본의 쿵푸나 가라데와는 달리 「도덕적 종합예술」로 승화되고 있어 현재 190여개 국가에 파견된 사범들이 1억 명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세계 유단지는 850여만 명이 된다. 그러나 불행이도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지도부는 집안싸움이 끝나질 않는다. 오늘날 해외 도장의 관장과 사범들의 정신무장과 도덕심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반면, 국내 도장은 문제성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분명 태권도가 제1의 한류인데 이것을 다시 요원의 불길로 만들어야 하겠다.

유치원, 초·중학교에서 왕따가 사라진 것은 태권도 덕분이다.

‘왕따 없애기’는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때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언론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이유를 알려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고 교육 당국은 스스로의 덕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

첫째, 태권도장의 학교 선배가 철저히 후배들을 보호해 주고 있고, 둘째, 학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보다 태권도장의 사범이나 관장과 교감이 더 많다는 것이고, 셋째, 태권도장에서 가르치는 예의범절이 학교보다 훨씬 실천적이라는 것이며, 넷째, 실제로는 자신감이 생겨 도전정신이 충만되어 왕따 당하

지 않는 능력을 배양했다는 것 등이다.

아리랑과의 조화는 또 다른 한류문화다.

만약에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태권도 종주국이라면 체육시간 대부분을 태권도 교육에 할애할 것이고, 중국이나 홍콩, 대만처럼 아침·저녁으로 공원 또는 광장에 모여 검무나 사교춤처럼 국민 태권도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기가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10일, ICKC와 4대 태권도 단체가 주관한 「세계를 향한 태권도, 새로운 혁신을 통한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서 태권도 시범이 있었다. 이 중에서, 아리랑 풍악과 음률에 따라 태권도의 품새와 혼합된 춤사위의 화려함과 울동을 보며 이를 국민체조로 승화시키는 일이 나와 같은 태권도 무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깨달았다.

필자가 세계 각국의 태권도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 나라의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벽에 붙어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면서도 아쉬웠던 것은, 양국 국기에 대한 경례 후 곧바로 기마자세 등 몸풀기에 이어 품새 동작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몸풀기와 끝내기 마감 동작도 한민족 고유 음률인 아리랑 가락 속에 우리의 울동과 춤사위를 한다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태권도가 한국문화(한류)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 용어인 우리말

이 더욱 확산되어 한류를 이끌어 가고 전파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강남스타일'이 금방 통용되듯이 지구촌 모든 이가 배우기 쉽고 고운 우리말 태권도 용어를 몇 가지 더 개발되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 재단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보급하는 전자교과서 속에 태권도와 결합된 아리랑, 뽀로로, 아기공룡 둘리 같은 한국만화를 틈새시간으로 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내 태권도장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사라지고 있다.

국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성향이고 병역미필자는 한 명도 없다. 현재 국내 태권도장 약 9,400여개 중에서 관장은 모두 대학(전문대 포함) 출신이지만 사범들은 37%가 고졸자이다. 39%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10%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곳도 있다. 태권도 관련 단체들은 국내 도장부터 체제정비를 강화하고 사범들의 인성교육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설사 어린이를 돌보는 유아원 같은 곳으로 치부하는 시각이 있긴 하지만, 태권도장이 다른 학원(음악, 미술, 어학 등)들보다 심신을 단련시키고 도덕적 품위가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도덕심이 존재하는 유일한 도장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 [출처: GTN TV 2014.05.20.]



태권도 기사

태권도원, 美 메사츄세츠주 태권도대회서 큰 관심 끌다

5월 18일, 미국 메사츄세츠주 태권도 대회(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Tournament)가 노르우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뉴잉글랜드 6개 주 태권도 사범 50여명과 선수 500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는 태권도 4종목의 경기로 치러졌는데 이곳에서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 이 소개되어 태권도 애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는 특별 이벤트를 구상, 태권도인과 참관객 대상으로 태권도원 홍보 동영상 제공 상영 및 관광 홍보물을 배포하여 태권도원이 대한민국의 특화 관광 상품이자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임을 미국 태권도 관계자에게 널리 홍보했다. 출처 GTN TV 2014.05.20.

한글과 한국어, 독일 제도권으로 정식 인가 받아 수업 시작



최양현

함부르크 다물 민족학교 교장, 후랭켈종합학교 한국어 강사

2013년은 한독수교 120주년, 파독 근로자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 동안 한국과 독일은 경제 외교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고, 특히 독일은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우리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한국의 경제를 위해 광부와 간호사 3만 여 명이 독일 땅에서 고생한 덕분에 오늘날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한국의 근로자들은 독일 내 타 외국인들에 비해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을 하여 독일인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독일 내 소수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특히 2세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독일 내 주류에도 많은 진출을 하여 한국인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들 2세 중에는 독일에서 태어났음에도, 대한민국의 정신과 문화를 이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하는 한국어 교육을 잘 받아 재외 한인 동포 사회에서도 모범적으로 정체성 교육을 가장 잘 시킨 동포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지

난 50년 동안의 동포 사회를 돌아볼 때, 독일 내 소수 민족들 중 약 3만 명에 달하는 재독 한인 동포들은 다른 소수 민족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독일 사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즉, 유럽권내에 살고 있는 터키 혹은 폴란드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독일 내에 많은 정착민들을 만들어 자국 언어만 사용해도 독일 내에서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들을 하지만, 우리 한인 동포 사회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관계로 아무래도 동포사회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전 독일 내 한인사회에서 만든 한글학교의 학생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동양권에서는 일본인과 중국인의 진출이 활발해 현재 독일 내에서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독일과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해 중국어를 배우는 독일인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어를 가르치는 공자 학당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런 와중에서도 재독 한인 동포 사회는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름 한국을 알리는 각종 문화 행사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어 국가를 대신해 민간 외교를 톡톡히 하고 있다. 독일 내 각 지역에서 행하는 축제에 참가해 좋은 평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류 열풍이 일어 독일 젊은이 사이에 한국을 알고자 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K-Pop의 영향으로 한국 노래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 독일인들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은 그리 많지가 않다. 기껏 각 지역 한글학교에서 운영하는 성인반에서 가르치고 있

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즉,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은 셈이다.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글 및 한국어 교육”이 더욱 활발해 져야 할 것이다.

2001년 3월 1일, 독일 함부르크 지역에 민간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문화와 예술, 한국 역사를 알리고 가르치는 “함부르크 다물 민족학교(대표 이경란)”가 개교하여 지난 10년 이상 국가의 도움 없이 재독 한인 동포들뿐 아니라 독일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각종 문화 사업을 실시해 와 함부르크 한인 동포 사회뿐 아니라 독일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 오고 있다. 특히 함부르크 시내 소재 종합학교(Frankelstrasse Gesamtschule)에서 2013년 8월 16일부터 독일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제3외국어로 정식 인가를 받아 매주 2시간씩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현재 20명의 독일 학생들이 매주 금요일 오후에 열심히 배우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전교생의 65% 정도가 독일 태생이 아닌 타국 출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셈이니 결국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이미 5년 전부터 함부르크 다물 민족학교에서는



학교 측과 접촉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사물놀이를 매주 가르쳐 왔고, 한국음식 소개, 연등 만들기와 탕화 그리기 등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교장과 많은 교사 및 학부모들이 한국에 대해 우호감을 갖게 되었고 한글과 한국어를 학생에게 가르치는데 부담 없게 함으로써 결국 독일 최초로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가르치게 되는 쾌거를 이룬 셈이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독일어로 된 교재도 착실히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학교와 연계하여 상호 교류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양국 문화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양국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젊은 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교실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외 성인들도 한글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현재 기획 중에 있다. ■■■■■■



한국어정규과목추진위 & 총영사관, 릿지필드 학군 초청 방문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회장 김영덕)와 뉴욕총영사관 뉴욕한국교육원(원장 박희동)이 4월 3일, 뉴저지 릿지필드 학군을 방문해 한국어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릿지필드 학군의 로잘리아 아모데오 외국어 부장은 “제2외국어로 한국어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가 부족해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제2외국어 교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인식에 학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와 교육원은 한국어반 개설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특히 기간제 교사가 채용돼 늘어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출처_ 미주한국일보 2014.04.04

■ 태권도 세미나 개최

3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김장실, 박창식 의원 주최, ICKC와 세계 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태권도 세미나에 약 200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세계를 향한 태권도, 새로운 혁신을 통한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국내 태권도 활성화 방안', '태권도 세계화 비전과 전략'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세미나가 아니라 제2, 제3의 모임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태권도 세계화를 향한 실천적 발걸음을 단기로 하였다.



■ 창립 3주년 기념 강연회 개최

3월 25일(화), 오후 4시, 한국방송통신대학 역사관에서 ICKC 창립 3주년 기념 강연회가 우리나라 역사드라마의 현장을 지켜오신 신봉승 선생의 '근대화란 무엇인가? - 역사를 읽어야 미래가 보인다.'란 주제로 치러졌다.

신봉승 선생은 우리의 근대화는 일본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자주적이지 못했고 근대화 1, 2세대의 근대화 의식과 의지가 꽃을 피우지 못함으로 인해 자주적이고 정신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잊혀져간 근대화 선각자, 특히 이동인 선생의 업적을 논하면서, 한국 역사 교육에서 근대화 의식을 가진 위인을 조명함으로써 정신적 근대화를 완성해 나가야 함을 피력하였다.



■ 백영훈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4월 28일(월), 저녁 6시, 더케이서울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백영훈 박사(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를 모시고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1호 국비 장학생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학 박사인 백영훈 원장은 1960년대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 서독 정부와 독일 경제계를 설득해 상업 차관을 유치하는데 기여한 분이다. 유학시절 경험과 한국 경제개발에 대한 소회, 특히 파독근로자 관련 일화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온몸으로 뛰었던 숨은 일꾼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참석자들은 백영훈 박사가 친필 사인한 저서 『조국 근대화의 언덕에서』를 선물 받았으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파독근로자들의 역사적 공헌을 다시금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뉴욕입양아학교에 한복 후원

ICKC는 5월 1일, 예뻐한복의 협조로 뉴욕입양아학교에 한복 10벌을 후원하였다. 뉴욕입양아 학교(교장 김근순)는 뉴욕 맨해튼 소재 주말학교로, 한인입양아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10월에 개최되는 '코리안 퍼레이드'에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 올 가을 행사 때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한복을 모두 입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와 기쁨을 전하였다.

■ ICKC 5월 문화탐방 - 한국민속식물원

ICKC 5월 문화탐방은 21일(수),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식물원'으로 다녀왔다. ICKC 회원인 (재)한국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의 농장이기도 한 한국민속식물원은 순수 한국 식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대 조우현 교수의 설명으로 제주에서 백두까지 퍼져 있는 우리 식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한국의 지형과 특색에 맞는 조경 시설도 관람하였다. 식물원 관람 후, 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 지도자·농민들과 만나던 장소에서 담소를 나눈 후, 이병화 원장의 특강을 끝으로 문화탐방을 마쳤다.



■ 사업 확장에 따라 ICKC 정관변경

ICKC는 그간 한국어와 태권도, 그리고 미국에 집중되어 왔던 문화교류 사업을 한국 문화 전반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정관 4조(사업 내용)에 '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한 연구·협력 및 지원' 항목을 추가, 3월 25일 총회에서 의결하고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후, 정관을 변경 등기하였다. 이로써 본회는 한국문화교류 사업을 보다 포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ICKC 광화문 분소 사무실 오픈

ICKC는 사업 확장에 따라 광화문에 분소 사무실을 오픈하고 한국문화교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 추진 중이다.

- 분소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3길 30. 708호(내수동, 세종로대우빌딩)

후원금 보내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 (기획재정부공고 제 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정 사항]

지난 11호 소식지에서 2013년도 후원하여 주신 분 명단에 김정복(세무법인 하나회장, 전 보훈처 장관) 회원님이 누락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